

- [5] 기획재정부 2018 담배시장 동향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6614&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6614&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6] 기획재정부 2021 담배시장 동향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05839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05839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7] 선필호. 금연 정책 포럼 전자담배와 쉐어링 전자담배. 제15호.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4-13  
[https://www.khealth.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8&page\\_no=B2017002&pageNum=1&siteId=&srch\\_text=&srch\\_cate=25&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10082](https://www.khealth.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8&page_no=B2017002&pageNum=1&siteId=&srch_text=&srch_cate=25&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10082)
- [8] Hwang CD, Park JW, Kim DJ, Chun SW, Kwon JE, Kwon KH. Study of the Discourse of E-cigarette. Korea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016;19(3):18-21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52523#none](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52523#none)
- [9] 보건복지부 쉐어링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쉐어링(일반담배)과 함께 사용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565](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565)
- [10] Kim, E. K., & Song, M. R.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related to a smoking cessation program among smok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3;15(4):184-192 doi:10.7586/jkbns.2013.15.4.184
- [11] 김삼곤,한정호,이태경,남상진,진선진. 전자담배. 한국연초학회지, 2015;37(1):34.0-48.0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507740043442>
- [12] 보건복지부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15981](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15981)
- [13] 윤수한 “입에 대려다 또 평?”...‘시한폭탄’ 전자담배, 2019년 7월 4일, (2022년 11월 1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90796\\_28983.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90796_28983.html)
- [14]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건강통계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pblcVis/details.do?ctgrSn=51>
- [15] 박순우. 대학생 흡연 관련 행태 및 흡연에 의한 건강문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1;28(5):35-4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26348>
- [16] Allem JP, Unger JB, Garcia R, Baezconde-Garbanti L, Sussman S. Tobacco Attitudes and Behaviors of Vape Shop Retailers in Los Angeles. Am J Health Behav 2015;39(6):794-798  
<https://doi.org/10.5993/AJHB.39.6.7>
- [17] Jung BR. A Study on the Usage Pattern and Recognition of Electronic Cigarette Among the Smoker Soldier in the Air force; The Visitors in Smoking-Cessation Clin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6. In Seoul. South Korea
- [18] 류호선(Ryu Hyo Sun),and 정순철(Jeong Sun Cheol). 흡연자의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2020;4(2):143-152 <https://doi.org/10.14367/kjihp.2016.33.2.67>
- [19] 금연길라잡이 전자담배 사용률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44/H/65/view.do?article\\_seq=797000&tag\\_name=&cpage=1&rows=10&condition=&keyword=&cat=&rn=2](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44/H/65/view.do?article_seq=797000&tag_name=&cpage=1&rows=10&condition=&keyword=&cat=&rn=2)
- [2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일부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 우려 보도자료 <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85&nttNo=3026&key=189>

- [21] 청소년 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120&lsiSeq=218027#0000>
- [22] 김혜정, 황지은. 국내 쉐련형 전자담배 광고에 관한 연구: 잡지광고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2020;46(4):11-23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RT002655764>
- [23]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5. 담뱃값 인상 및 전자담배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5(4): 85-125 <https://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370989&code=CP00000006>
- [2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null>
- [25]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0159](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0159)
- [26] 백선영. 전자담배 액상 및 기체상 중 유해성분 분석법 표준화 및 평가연구(I)- 니코틴 및 카르보닐 성분(1). 보고서. 독성평가연구부 첨단분석팀. 2016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70001776>

#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Self-Elasticity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4th Grade

유현준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수민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공주원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박지영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수연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채영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권민경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명선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강채원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박민주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지연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유진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조유나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지도교수

### 초록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 간호학과 1, 2, 3,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143명을 대상으로 2022년 07월 03일부터 2022년 09월 21일까지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성별( $p=.04$ ), 나이( $p=.04$ )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전공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 $r=.46, p=.00$ )가 있었고, 간호학과 1~3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전공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 $r=.41, p=.00$ )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간호학과 4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1~3학년 학생 모두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간호학과 모든 학년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적 행복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추후 간호학과 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와 함께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주제어 :** 주관적 행복감,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간호학과 4학년 학생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입학을 하거나,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취업률이 높은 인기 있는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간호학과 학생은 다른 전공 대학생보다 스트레스가 4배 정도 높고, 삶의 만족, 행복

감을 비교한 결과 간호학과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간호학과 학생은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타과 대학생보다 많다. 또한 엄격한 교육과정과 위계질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실습수행, 임상실습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와 대인관계, 실습환경과 상황, 역할, 지식, 기술, 과제물 등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 이는 정서적 갈등, 정체감 상실, 내적 혼란[3]을 야기하고, 결국 주관적 안녕감인 행복감은 감소하여[4], 전공에 대한 만족감 저하와 개인 삶의 행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등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간호학과 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5].

간호학과 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김순희, 2015)’,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금이, 2011)’,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의 영향요인(김은만, 2016)’,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김수울, 2017)’ 등이 있었다. 하지만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에 따른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 졸업과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청주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 간호학과 1, 2, 3,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1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석, 김성희(2012)가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한 척도를 적용한 점수이며, 총 32문항 중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석, 김성희(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67이었다.

##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와 Braskamp, Wise와 Hengstler가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과평가조사지 문항을 간호학과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하혜숙(1999)이 우리의 문화에 맞게 수정,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학부)만족 도구 중 전공만족 관련 12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정명숙(20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된다. 정명숙(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0이었다.

## 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 & Lepper(1999)이 개발한 행복 척도이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내적 기준, 동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등의 4가지 기준과 비교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한다. 최저 4점에서 최고 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인자(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9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5 이었다.

##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청주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07월 03일부터 2022년 09월 21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비밀보장 및 무기명처리, 연구 참여 중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 참여 철회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의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이 끝난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감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3) 간호학과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과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15명(80.4%)으로 많았고, 연령은 25세 이하의 학생이 20.1명(88.8%)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는 1~3학년 학생이 89명(62.2%)으로 많았으며, 4학년 학생이 54명(37.8%)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가 65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타인의 권유'가 40명(28.0%),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는 29명(20.3%),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기타'가 각각 4명(2.8%), 5명(3.5%)으로 나타났다.

표 1.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

(N=143)

특성	종류	n(%)
성별	여자	115(80.4)
	남자	28(19.6)
나이	25세 이하	20.1(88.8)
	26~29세	3.5(5.6)
	30세 이상	2.6(5.6)
학년	1~3학년	89(62.2)
	4학년	54(37.8)
지원동기	타인의 권유	40(28.0)
	취업이 잘 되어서	65(45.5)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29(20.3)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4(2.8)
	기타	5(3.5)

## 2.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t=-1.2$ ,  $p=.026$ )은 5점 만점에 1~3학년 학생은  $2.93\pm 42$ 점이었으며, 4학년 학생은  $3.01\pm 29$ 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만족도( $t=1.58$ ,  $p=.108$ )는 5점 만점에 간호학과 1~3학년 학생은  $4.13\pm 56$ 점으로 나타났고, 4학년 학생은  $3.99\pm 48$ 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 $t=-1.15$ ,  $p=.020$ )은 5점 만점에 1~3학년 학생은  $5.05\pm 1.1$ 점으로 나타났고, 4학년 학생은  $5.25\pm 82$ 점으로 나타났다.

표 2.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N=1~3학년: 89, 4학년: 54)

요인		N	M±SD	t/F	P
자아탄력성	1~3학년	89	2.93±.42	-1.2	.026***
	4학년	54	3.01±.29		
전공만족도	1~3학년	89	4.13±.56	1.58	.108***
	4학년	54	3.99±.48		
주관적 행복감	1~3학년	89	5.05±1.1	-1.15	.020***
	4학년	54	5.25±.82		

### 3.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성별( $t=.22, p=.04$ ), 나이( $t=1.91, p=.04$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 $t=-1.23, p=.25$ )과 지원동기( $t=1.29, p=.27$ )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t=.22, p=.04$ )은 남자가 5.16점, 여자가 5.12점으로 나타나 간호학과 남학생이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t=1.91, p=.04$ )는 25세 이하에 답한 간호학과 학생이 5.05점, 26~29세에 답한 간호학과 학생이 5.16점, 30세 이상에 답한 간호학과 학생이 4.49점으로 나타나 26~29세 간호학과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 $t=-1.23, p=.25$ )은 1~3학년이 5.05점, 4학년이 5.25점으로 나타나 점수 차는 있지만 사후검증 결과  $p$ 값이 0.05보다 크므로 학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동기( $t=1.29, p=.27$ )는 타인의 권유 5.40점, 기타 5.30점,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5.12점,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5.11점, 취업이 잘 되어서가 4.95점으로 나타나 점수 차는 있지만 사후검증 결과  $p$ 값이 0.05보다 크므로 지원 동기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N=143)

특성	구분	주관적 행복감				
		N	M(SD)	t/F	P	scheffe
성별	여자	115	5.12(.95)	.22	.04**	
	남자	28	5.16(1.18)			
나이	25세 이하	20.1	5.05(.96)	1.91	.04**	
	26~29세	3.5	5.16(.76)			
	30세 이상	2.6	4.49(.69)			
학년	1~3학년	89	5.05(1.09)	-1.23	.25***	
	4학년	54	5.25(.82)			
지원동기	타인의 권유	40	5.40(1.04)	1.29	.27***	a>.b,c,d
	취업이 잘 되어서	65	4.95(1.00)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29	5.11(.88)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4	5.12(.82)			
	기타	5	5.30(1.25)			

\* 사후검증: Scheffé test, \*\*  $p < 0.05$ : 차이 있음, \*\*\*  $p > 0.05$ : 차이 없음

### 4.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r=-.17, p=.20$ )와 유의하지 않았고, 간호학과 1~3학년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r=.12, p=.22$ )와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